

김남훈

변호사

상법

변호사시험대비
강의계획서

진도별모강

- 하나의 판례를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대비로 동시에 분석하는 통합형 강의
- 이는 쟁점은 고득점 답안, 모르는 쟁점은 방어적 답안의 작성방법에 대한 강의
- 미기출 중요쟁점의 학습을 통한 출제예상쟁점의 완벽한 정리를 위한 강의
- 사례형 보충문제로 어음수표법의 사례형 · 기록형 쟁점까지 대비하는 강의
- 선택형 문제풀이를 통한 어음수표법 · 보험법의 선택형까지 대비하는 강의
-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현직 변호사의 적중률 높은 실전형 문제와 강의

일 정

2018. 9. 4(화) ~ 9. 11(화), 총 7 회, 월~토 강의

시험 오전 8시 ~ 9시 30분 (사례형 1시간, 선택형 30분)

강평 오전 9시 50분 ~ 12시 30분 (사례형 해설→휴식→선택형 해설)

교 재

- 진도별 모의시험 문제 + 해설자료 (제공)
- 해설지 구성 : 실전용 예상문제 + 보충문제 + 사례형 답안의 2원화 (상세답안+암기용답안)
- ※ **개인별 대면참석반** - 2일차부터 진행 (개인별 참석시간은 2일차에 공지에정)

수 강 특 전

진도 전과목(민법, 민소법, 상법, 기록형) 실강 수강생(대면참석반 포함)을 위한 특전

1.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 특강 무료수강 (교재포함)
2. 2018 협의회 모의시험 사례형·기록형 해설강의(11월 예정) 무료수강 (교재포함)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

상법 진도별 모강

민
사
법
키
워드
강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 특강 - 진도 쟁점 복습 겸용 강의

- 일정 : 9. 17(월) ~ 9. 22(토) 총 5회 / 9. 18(화)는 수업없음 (일정변경에 유의)
 - 과목 : 민법(2회), 민소법(1회), 상법(1회), 기록형(1회)
 - 시간 : 저녁 7시 ~ 10시
 - 교재 :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 특강(근간)
 - 내용 : 사례형·기록형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키워드의 정리 및 암기를 위한 특강
- ※ **진도 전과목(민법, 민소법, 상법, 기록형) 실강수강생(대면참석반 포함) 무료(교재포함)**

출
제
기
준

- 2018년 상반기 판례까지 반영하여 출제예상판례를 실전형 문제로 구성
- 2018년 각종 시험의 선택형·사례형 기출 쟁점을 반영하여 구성
- 2018년 상반기까지의 상사법학회 토론주제 판례까지 반영하여 구성
- 2017년 전원합의제 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문제를 구성

강 의 진 행

I. 상법의 출제경향

1. 선택형

- 선택형은 평균 2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20문제 중에서 회사법이 1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되는 지문도 판례의 태도를 묻는 전형적인 선택형 문제부터, 상장회사의 특례 조문이나 상법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사례형

- 사례형은 총 350점 중에서 100점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경향을 보면 100점 중에서 60점 ~ 70점 정도는 전형적으로 중요한 예상문제 또는 가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2회 사례형에 출제되었던 위장납입이 제5회 시험에 다시 출제되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점 ~ 30점 정도가 수험생들이 예상하지 못했다고 언급되는 쟁점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3. 기록형

- 기록형에서는 매년 상법의 중요한 쟁점이 한 가지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양도, 전단적 대표행위, 표현대표이사, 백지어음, 대표소송, 주총결의취소소송 등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II. 상법의 학습방향

- 상법은 회사법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선택형에서는 50% 이상이 회사법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사례형에서는 회사법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례형에서는 회사법 이외에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의 중요 쟁점도 학습해야 합니다.
- 또한 기록형에서도 상법의 중요 쟁점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제2회 시험에서는 회사법의 중요 쟁점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3회 시험에서는 상법총칙의 중요 쟁점인 영업양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5회 시험에서는 표현대표이사과 백지어음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6회 시험에서는 주주의 대표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7회 시험에서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요 테마에 대하여는 기록형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 선택형에서는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하여 조문(시행령 포함)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상법전을 읽으면서 해당 부분을 학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시행령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00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너무 세부적인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Ⅲ. 문제출제의 기준과 강의의 목표

- 선택형 대비를 위하여 중요한 판례의 태도와 상법 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험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 사례형과 기록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 출제된 쟁점 및 기타 주관식 시험에 출제된 모든 쟁점을 문제로 정리할 것입니다. 그 외에 실무적으로 중요해서 변호사 시험의 특성상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과 최근 상법 학계의 경향까지도 정리하여 내년 시험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00% 적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어음수표법이나 보험법이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소한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도 보충문제로 연습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 상법은 민법이나 민사소송법과 달리 전형적인 답안작성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강의 또한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그 외 최근 개정법의 중요 내용도 모두 학습할 것입니다. 또한 대면첨삭을 통하여 개인별 부족부분을 보충하고, 채점자들이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1대면첨삭은 첨삭반에 한해 진행됩니다.)
- 상법 진도별 모의고사의 목표는 “진도별 모의고사 해설지”만으로 제8회 변호사시험에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추가할 교재나 자료 없이 “진도별 모의고사의 해설지”안에 상법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선된 문제만으로 출제하고 강의할 것입니다. 총 7회 강의만으로도 상법 문제에 100% 적중할 수 있다는 것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또 다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Ⅳ. 적중사례 예시 : 제5회 변호사시험에 적중한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기출문제 : 제5회 변호사시험]

A회사는 최근 투자 실패로 인하여 거액의 손실을 보아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甲은 이를 감추고 사옥매각대금으로 확보한 2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안을 작성하였다. A회사 이사회는 전원찬성 결의로 이 배당안을 승인하였고, A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배당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A회사의 채권자 Y는 5천만 원의 채권을 변제기에 변제받지 못하였다.

〈 문제 〉

4. Y는 위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A회사 주주들 및 이사에 대하여 「상법」상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30점)

[적중문제 : 2015 상법 진도별모의고사 7회차]

○ A주식회사는 2015. 5.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인 P의 주도하에 이익배당에 대한 결의를 하여 배당하였다. 그 당시 A주식회사의 총자산은 80억 원, 부채는 50억 원, 자본준비금 5억 원, 이익준비금 8억 원, 미실현이익은 12억 원, 주식의 액면가 1만 원, 발행주식총수 5만주이었다.

〈 문제4 〉

위의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A주식회사의 채권자 M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점)

-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제4번 문항은 수험가에서 출제를 예상하지 못했던 소위 ‘불의타 문제’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남훈 변호사는 본 쟁점은 사례형으로 출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하는 쟁점이라고 단견화 강의시간부터 강조하였고,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였지만,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가를 설문으로 구성하여서, 출제된 문제보다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잘 정리한 수험생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었습니다.
-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에 의한 예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쟁점까지 적중하는 것입니다. 내년 시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김남훈 변호사의 출제 예상이 또 다시 100% 적중하였다는 것을 내년 시험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정	선택형 시험범위	사례형 시험범위
1	9/4(화)	주식과 주주	선택형과 동일
2	5(수)	기관	
3	6(목)	신주와 사채 및 기타제도	
4	7(금)	회사법 총론(합병·분할 포함) / 상법총칙	
5	8(토)	상행위법, 보험법	회사법 전범위
6	10(월)	어음수표법 총론	
7	11(화)	어음수표법 각론	

※ 진도는 누적됩니다. 사례형의 경우에는 시험의 특성상 진도 외의 범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